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698

2016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 배려윤리의 교육방법 연구

## -누스바움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 전공

최 수 경

2016년 8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배려윤리의 도덕교육적 방법 고찰 최수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배려윤리의 교육방법 연구

## -누스바움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The Method of Moral Education in Ethics of Caring : Based on Empathy and Literary Imagination of M. Nussbaum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 전공

최 수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배려윤리의 교육방법 연구

지도교수 설 헌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 전공

최 수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수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설 헌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재 진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목 차

ABSTRACT ····· 1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5

제2장 배려윤리의 두 가지 흐름 ····· 6

제1절 길리건의 배려윤리 ····· 6

제2절 나딩스의 배려윤리 ····· 13

제3장 배려윤리의 교육방법 연구 ····· 18

제1절 감정과 공감 ····· 18

1. 감정 ····· 18

2. 공감 ····· 24

제2절 문학적 상상력 ····· 2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결론 ····· 35

참고문헌 ····· 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ABSTRACT

## The Method of Moral Education in Ethics of Caring : Based on Empathy and Literary Imagination of M. Nussbaum

Choi Su-gyeong
Advisor : Prof. Heon-yeong Seol Ph.D.
Major in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I examine ethics of caring -a new area of ethics- studied by Gilligan and Noddings, who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ethics of justice. Furthermore, I discuss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ethics of caring.

Also, I review Nussbaum's literary imagination, which is a methodology of practicing ethics of caring. Literary imagination enhances the capacity of empathy, that helps to practice ethics of caring.

Due to material civilization, people in modern society experience are being isolated and excluded. In the education field, people feel the limitation of ethics of justice, being to discuss on alternative. The alternative is the ethics of caring. Caring is not moral inclination of female specific, but an attitude that moral humans should possess. Those who propose it are Gilligan and Noddings. Noddings is the one who extends i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o the education field. The specific methodologies are modeling, dialogue, practice, confirmation. Modeling is to show how to form caring relationships with students. Dialogue i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concentrating. Practice is experience to care others. Confirmation is to recognize the Other's strengths.

However I propose a fundamental work prior to applying the above mentioned four principles. That is to nurture the capacity of empathy. Because modeling, dialogue, practice and confirmation can work after possessing the capacity of sympathy. Then, how can nurture the capacity of empathy?

In this regard, I focus on Nussbaum's literary imagination.

In this study, I contend that nurturing literary imagination is essential as the way of practicing caring. Educating literary imagination enables students to have an attitude to practice caring others. The attitude itself is empathy. Because empathy is the first step to take practicing caring others, educating literary imagination is importan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얼마 전 필자는 TV뉴스를 보며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기를 바랐던 적이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 투쟁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광장 한 켠에 일부 일베 회원들이 피자와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필자는 순간 같은 공간이 아닐꺼라 생각했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곳은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 같은 공간이었다. 자식을 왜 잃어야 했는지 영문도 모르는 억울한 부모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의 사려 깊지 못한 장난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나친 행동이었다. 게다가 친자식을 죽이는 친부모들, 친 딸을 강간하는 친아버지를 보면서 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무한경쟁 때문에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소외 현상과 지나친 이기주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도덕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 70%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가 덜 배우고 못 배워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배우는 도덕과 윤리가 실효성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삶의 맥락과 타인의 삶의 맥락을 떠나 있는 추상적인 도덕 교육이 더 이상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윤리의 폐해- 필자는 추상적인 도덕 교육 이외에 또 다른 대안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 1936~)에 의해 제안된 '배려윤리'(an ethics of caring)이다. 물론 배려윤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30여 년 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도덕 교육이 이 배려윤리를 완벽히 체화하지 못한 것 같다. 배려윤리의 중요성은 모두들 인정하지만 어떻게 배려윤리를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길리건과 나딩스(Nel Noddoings, 1929~)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배려윤리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문들이 항상 이론연구에 그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필자는 이제 배려윤리를 한국 교육계에 체화시키기 위해 이론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방향의 방법적 연구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그 방법들 중 마사 누스바움(M. Nussbaum, 1947~)의 문학적 상상력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이다. 누스바움은 2008년 '감정과 정치문화'라는 주제로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의 수많은 연구논문과 책들 중 필자는 『시적정의』(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라는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적인 삶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필자는 문학적 상상력이 비단 공적인 삶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타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학적 상상력은 각자의 삶의 맥락을 살펴보게 하고 공감하게 하며 결국 타자를 배려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스토리(story), 즉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삶의 맥락들만을 강조하다 보면 타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고, 끝내 비슷하지 못한 삶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필자는 각자가 가지는 삶의 맥락을 인정하고 공감하다 보면 이러한 맥락들이 배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간연대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 어린 상상력의 통찰을 완벽하게 체화한 사람만이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딩스는 배려자의 자세를 '전념'과 '동기적 전치'라고 한다.[1] 전념은 피배려자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다. 동기적 전치는 우리가 피배려자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2] 그것은 누스바움의 공감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나딩스는 전념과 전치가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에 의해 교육되어야 한다고 한다.[3] 그러나 필자는 나딩스의 도덕교육 네 가지를 실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누스바움이 말한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교육은 공감

1) 넬 나딩스, 『배려교육론-인간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다른우리, 2002), p.42 참조.
2) 상게서, pp.42-43 참조.
3) 상게서, pp.53-54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주목할만한 도덕교육적 방법이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배려윤리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려윤리의 주요한 두 가지 방향인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윤리를 고찰한다. 1절에서는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정의윤리에 대한 내용과 한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아본 후 길리건의 배려의 의미를 살펴 본다. 2절에서는 나딩스의 배려윤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딩스의 도덕교육론, 즉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 4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3장에서는 배려윤리의 방법적 고찰을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행한다. 1절에서는 타인과의 공감의 문제를 다루고, 그러한 공감을 이루는 합리적 감정, 그리고 감정적 합리성을 가진 분별 있는 관찰자에 대해 다루었다. 2절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배려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학적 상상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4장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배려교육에 기여하는 의미를 논한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literature study)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주로 선행 연구 논문들과 관련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와 나딩스의 『배려교육론』,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논문들과 관련 단행본들을 분석하였다. 2차 자료로는 국내·외 교육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서적과 논문을 활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2장 배려윤리의 두 가지 흐름

## 제1절 길리건의 배려윤리

여성 발달에 관한 이해의 문제에서 출발한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그동안 남성위주의 인간발달론에서 제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발달에 관한 이해와 도덕성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 도덕의 영역에서 여성은 단순히 간과된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은 남성성이고, 남성성과 반대의 의미로 정의되는 여성성은 남성이 도덕성을 획득하기 위해 거부해야 되는 것이 되었다. 도덕 교육철학에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율적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며,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발달심리학에서도 정의의 원리를 자신의 도덕원리로 채택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라는 가설이 콜버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주장되었으며, 이것은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다.[4]

그동안 정의의 원리에 의하여 남성의 도덕성이 마치 모든 인간의 도덕성의 전부인양 여겨왔으며, 여성의 도덕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길리건과 함께 인간 도덕성 발달 단계이론을 연구하였던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인지발달 이론을 확립시키며, 당시 도덕성 발달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5] 그러나 그는 여성들을 도덕성이 결핍된 존재로 특징지었다. 그는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덕발달이론을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배려의 원리를 간과하며 진행되었다.

> 콜버그는 이 연구과정에서 여성의 도덕판단능력의 성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긴 했지만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 척도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수준까지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지도 않았다. 콜버그의 이론에 내

4) 이나현, 『배려윤리의 내러티브 교육과정을 위한 탐색』, (한국학술정보, 2008), p.25.
5)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인간사랑, 2004), p.316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재된 이러한 성적 편견이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제기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6]

여성이 똑같은 권리는 가졌지만, 남성의 도덕발달단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의 도덕성인 배려의 원리를 배제하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다. 이러한 콜버그의 성적편견이 담긴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이 길리건의 배려윤리이다. 길리건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심리적 과정과 이론들, 특히 남성의 경험이 모든 인간의 경험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이론들, 여성의 삶을 가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이론들에 대해 제기되는 것들이다. 인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보고 말함으로써 남성들은 여성들을 제외시켜 왔지만, 여성들 또한 자기 자신들은 제외시켜 왔다.[7]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배제의 문제와 여성 스스로의 배제의 문제이다. 길리건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 말하면서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말하면서 그 본성이 여성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마치 이타적인 것처럼, 자기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또는 욕구를 갖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고 한다.[8] 그래서 길리건은 관계적인 목소리에 집중한다. 그 목소리는 여성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아나 자아, 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의 심리적 분리가 인간 발달의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임을 암시한다.[9]

> 길리건은 콜버그가 여성의 배려윤리를 간과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콜버그의 도덕 개념이 권리, 개별성, 합리성, 비인격성, 정의의 원리와 같이 전통적인 남성적 특질 및 가치를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계의 유지, 배려, 그리고 헌신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관심사를 도덕성 발달단계에서 낮은 위치로 격하시켰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길리건은 콜버그의 접근법에 의해 산출된

---

6) 박병춘, “보살핌윤리(An ethic of care)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p.31-32.
7)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1997), p.13.
8) 상게서, p.13.
9) 상게서, p.14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차는 그의 성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0]

콜버그는 남성들의 도덕성이 인류를 대표하는 도덕성으로 인식했다. 이런 그의 성차별적인 도덕발달이론은 여성들의 도덕성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가 거의 없던 시절을 살았던 콜버그의 시대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성격발달 이론은 대부분 남자들이 만들었고, 여성의 도덕성발달보다는 남성의 도덕성발달에 관해서 더 많은 통찰과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정의감이 덜 발달했거나 여성 도덕성의 성격과 발달이 그들의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 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11] 콜버그의 시대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길리건은 도덕성이 두 가지 도덕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와 책임이 도덕성이 그것이다.[12]

> 길리건은 남성은 개별적이고 분리된 자아 개념과 공평한 객관성, 직업에 기초한 정체성, 추상적이고 공평무사한 규칙 혹은 원리에 대한 선호 때문에 전형적으로 정의 지향성(혹은 권리 지향성)을 갖는다고 믿었다. 반면, 여성들은 타인과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자아 개념,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정체성,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민감성, 자신 및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 지향성(혹은 반응 지향성)을 갖는다고 보았다.[13]

남성의 도덕성을 인간의 대표 도덕성이라고 착각했던 콜버그와는 달리, 길리건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도덕의 지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은 또 다른 여성차별을 낳는 결과를 만들겠지만, 그러한 정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모두 흔들만한 아주 중요한 발견일 것이다.

이러한 성에 따른 도덕적 지향성은 또 다른 물음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도덕적 지향성이 어디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길리건은 도덕적 지향성의 기원이 가정 안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겪는 서로 다른 경험에서부터 출발한

10) 카트, 나딩스, 스트라이크, 『정의와 배려』, 윤현진 외 역, (인간사랑, 2007), p.11.
11) 콜버그, 레빈, 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문용린 역, (아카넷, 2000) p.194 참조.
12) 상게서, p.194 참조.
13) 카트, 나딩스, 스트라이크, 전게서(2007), p.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고 보았다.[14]

> 길리건은 불공평과 애착에 대한 소년 소녀의 상이한 경험이 정의와 배려 지향성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되며, 소녀의 정체성은 어머니와의 이러한 관계유지적 맥락에서 형성된다고 길리건은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애착의 경험과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자기규정(self-definition)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반면, 불평등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상호의존적 정체성과 배려 및 관계 유지를 향한 도덕적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년은 처음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애착심을 갖게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된다. 소년의 정체성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시도하고, 아버지의 힘과 권위와 연결시켜 나가는 맥락에서 형성된다. 그리하여 불평등의 경험이 두드러지고 분리와 독립의 필요가 자기규정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개체적 정체성과 정의 및 권리를 향한 도덕적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5]

길리건에 따르면 소년 소녀 시기의 인간이 겪은 이러한 상이한 경험 때문에 남아의 도덕적 지향성은 정의의 윤리가 되고, 여아의 도덕적 지향성은 배려의 윤리가 되는 것이다.

> 길리건은 이러한 도식에 근거하여 도덕적 정향의 성차를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프로이드의 관점과 유사하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갖고 또한 자신을 어머니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불평등의 경험을 덜 겪게 된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은 그들의 정향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소년들은 그와 정반대이다. 소년들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가지지만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불평등의 경험을 현저하게 갖는다. 이로부터 파생된 독립과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그들의 정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소녀들은 분리의 경험 없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동일시를 겪게 되고, 소년들은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위해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녀들은 배려의 도덕적 정향성을 갖게 되고, 소년들은 정의의 도덕적 정향성을 갖게 되

---

14) 상게서, p.10 참조.
15) 상게서, p.10.
16) 김태훈, 전게서(2004), pp.335-33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윤리가 남성만의 것은 아니고, 배려윤리도 여성만의 것은 아니다. 길리건이 두 도덕적 정향이 성과 절대적으로 관련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두 도덕적 정향이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17]

콜버그가 간과한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을 길리건은 자신의 배려윤리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인 배려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콜버그를 비판했던 길리건은 3가지 연구를 통해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도덕발달영역을 새롭게 제시했는데, 그 연구는 '대학생 연구', '임신 중절 결정 연구', '권리와 책임 연구'이다.

이 중에서 '임신 중절 결정 연구'는 도덕 발달 단계의 새로운 모형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길리건에 따르면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여성들이 도덕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책임들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덕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18] 이를 통해 길리건은 배려윤리의 발달 단계, 다시 말해 여성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다음과 같이 3수준과 2과도기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수준은 개인적 생존의 지향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자신을 위해 자기중심적이고, 보살핌 또한 자신을 위한 배려가 되는 것이다.[19] 도덕적 판단의 문제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내가 원하니까' 혹은 '내가 필요로 하니까'이다.[20]

첫 번째 수준이후에 자신이 이기적임을 인정하고 비판하는 첫 과도기가 이어진다. 길리건은 여성이 왜 자신의 이기적임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여성이 이렇게 자기비판을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사고에서 자아와 타아의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여성은 책임의 개념을 받아들여 두 번째 관점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21]

---

17) 박병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울력, 2002), p.73 참조.
18) 캐롤 길리건, 전게서, p.200 참조.
19) 이나현, 전게서(2008), p.51 참조.
20) 김태훈, 전게서(2004), p.337 참조.
21) 캐롤 길리건, 전게서(1997), p.15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단계는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무엇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선택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22] 자신의 욕구만이 중요했던 1단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처음으로 도덕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희생을 통해 선을 지향하는 수준이다.[23] 첫 번째 과도기에서 시작된 타인과의 관계문제는 이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 채로 다른 이에 대한 책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 자기 이익은 점차 뒤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 나아가 자기의 욕구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욕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 수준에서 여성은 이기심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중요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희생 능력으로 발달해 가게 된다. 이 수준에서 젊은 여성은 선을 자기희생과 혹은 타인들을 기쁘게 하거나 타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다.[24]

이제 여성은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행하려고 한다. 또한 자신만을 돌보게 되면 타인의 비판을 받게 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25]

이어지는 두 번째 과도기에서 여성의 관심이 선함에서 진실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26] 길리건은 여성이 타인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책임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 자기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구분하면서, 여성은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하는데, 이는 남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듯이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피해를 입히는 것과 보살핌 사이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단 양식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판단 양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솔

22) 김태훈, 전게서(2004), p.337.
23) 상게서, p.337 참조.
24) 이나현, 전게서(2008), p.52.
25) 김태훈, 전게서(2004), p.337 참조.
26) 상게서, p.337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직함이다. 즉,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현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행위에 대한 남들의 판단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행위자의 의도와 그 행위의 결과일 때, 도덕성의 판단 기준은 선함에서 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27]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했던 여성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만을 냈던 첫 단계와는 구별된다.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준의 여성들은 다른이의 욕구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욕구 또한 고려한다. 타인을 책임지기 위해 착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정직해지고 싶어하기도 한다.[28]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준은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의 조화의 단계이다.[29]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의 조화를 말한다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이나현은 이렇게 말한다.

> 이 단계의 여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무력하거나 복종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동등하게 당당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곧 여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부당한 착취와 가해를 막아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보살핌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채택한다.[30]

이처럼 길리건은 자아와 타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는 여성의 도덕발달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의윤리가 남성만의 것이 아니듯, 배려윤리도 여성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도덕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는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공존이다.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배려윤리를 주장했던 길리건의 이론이 가치있는 것이다. 그러나 길리건의 이러한 배려윤리는 도덕성에 대한 남녀의 구별을 심화시킴으로서 오히려 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1]

---

27) 캐롤 길리건, 전게서(1997), p.166.
28) 김태훈, 전게서(2004), p.337 참조.
29) 캘롤 길리건, 전게서(1997), p.178 참조.
30) 이나현, 전게서(2008), p.53.
31) 카트, 나딩스, 스트라이크, 전게서(2007), p.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2절 나딩스의 배려윤리

길리건의 배려 개념은 나딩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딩스는 길리건의 배려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녀만의 새로운 윤리체계를 만들어 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하고 남성의 정신이 지배하는 원리의 윤리와 여성적인 수용성, 관계성, 응답성에 근거한 사랑과 모성적 배려의 정신이 지배하는 배려윤리로 윤리학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32] 그러나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길리건이 배려의 심리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고 배려윤리를 하나의 도덕적 정향으로 정의한 데 비해, 나딩스는 배려를 근본적인 윤리적 현상으로 보았다.[33] 나딩스가 배려윤리를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하나의 윤리론으로 자리 잡게 했고, 교육학에 적용하여 배려교육론을 만들었다.[34] 길리건이 마련한 여성의 도덕적 정향성을 이용하여 나딩스는 그녀만의 배려사상을 낳은 것이다. 나딩스가 배려를 설명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것이다.

>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배려관계는 배려자와 피배려자라는 두 인간의 연관성, 혹은 만남이다. 그러한 관계가 배려라고 적절하게 불리기 위해서는 양자가 모두 특정한 방식에서 배려에 기여해야만 한다. 배려자와 피배려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의 실패는 배려의 완수를 가로막게 된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느끼는 만남 혹은 연관성, 즉 하나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배려의 관계가 아니다. 배려 관계에 있어서 배려자와 피배려자 각각의 기여 내용을 내가 기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관계적 정의(定義)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열성적인 교사가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러한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라는 학생들의 불평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아주 잘못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35]

나딩스는 배려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피배려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

32) 박병춘, 전게서(2002), p.120 참조.
33) 임정연, "나딩스의 배려교육론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p.22-23 참조.
34) 이동운, "넬 나딩스의 배려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p.13 참조.
35) 넬 나딩스, 『배려교육론-인간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다른우리, 2002), pp.41-4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데, 이는 배려자뿐만 아니라 피배려자 또한 배려의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딩스는 배려자의 의식상태를 전념(engrossment)과 동기적 전치(motivational displacement)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전념은 피배려자에 대한 개방되고 비선택적인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취(infatuation), 매혹(enchantment), 망상(obsess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용성을 의미한다.[36] 타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때 우리의 자세가 타인에게 개방되고 수용적인 태도로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타인을 배려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완전한 배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을 때 짧은 순간일 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배려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나딩스는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짧은 만남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 위에서 언급한 짧은 만남에서 우리의 의식은 동기적 전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손가락이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끼곤 한다. 이것이 바로 동기적 전치이다. 즉, 우리의 동기 에너지(motive energy)가 타인에게로 향해 흐르는 것이다. 나는 타인이 전달하는 바를 수용하여 타인의 목적이나 프로젝트를 조장하는 방식에서 반응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37]

전념과 동기적 전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보다 배려를 할 때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념과 동기적 전치의 자세를 가지고 타인을 배려한다면 타인의 요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딩스는 피배려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로서 감수성(reception), 인정(recognition), 반응(response)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8] 배려자가 피배려자에게 배려적 행동을 했을 때, 피배려자는 배려자의 배려가 수용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럴 때에야 배려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살펴보

36) 상게서, pp.42-43 참조.
37) 상게서, p.43.
38) 상게서, p.44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 어머니의 배려에 아이가 미소와 손짓으로 반응한다면 어머니의 배려행위가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반응이 없다면 어머니는 쉽게 지치게 된다. 일방적인 배려의 관계처럼 보이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조차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딩스는 이처럼 배려자의 역할만 강조하지 않고, 피배려자의 반응도 강조하였다. 나딩스는 이러한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 속에 상호성(mutuality)[39]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계로서의 배려에 관심을 가진 나딩스는 자아에 대한 배려,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동물·식물 그리고 땅에 대한 배려,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 사상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배려의 관계를 나열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나딩스는 이러한 배려를 완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도덕교육에 대해서 언급했다. 도덕교육의 네 가지 기본구성요소는 바로 본보기(modeling), 대화(dialogue), 실천(practice), 인정과 격려(confirmation)이다.[40]

도덕교육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본보기(modeling)이다. 나딩스는 본보기가 대부분의 도덕교육에서 중요하지만 배려를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41] 나딩스는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원리나 그 원리를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대신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과 관계 안에서 행동을 통해서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배려의 의미와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42]

즉, 무엇을 하라고 하는 지시형태의 도덕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모범을 보여 학생들에게 배려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학생들은 배려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배려를 받아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배려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지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나딩스는 "우리는 모델링의 목적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의 배려는 참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모델링은 하나의 부산물이다."[43]

그렇기 때문에 배려자 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39) 상게서, p.44 참조.
40) 박병춘, 전게서(2002) pp.148-155 참조. 추병완외 2명이 번역한 나딩스의 책『배려교육론-인간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는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이라고 번역되어있지만 내용에 보다 가깝게 번역된 박병춘의 책을 참조하였다.
41) 넬 나딩스, 전게서(2002), p. 54 참조.
42) 박병춘, 전게서(2002) p.148 참조.
43) 넬 나딩스,『넬 나딩스의 교육철학』, 박찬영 역, 아카데미 프레스, p. 29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배려자로서의 역할과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언어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한다.

도덕교육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대화이다.

>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나 담화가 아니다. 단순한 이야기나 담화의 경우 상대방은 가끔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화는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것이다. 순수한 대화의 경우 그 어느 쪽도 어떤 결과 혹은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하여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결정을 이미 내린 다음에는 아이들과 순수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대화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인식을 위한 공동의 탐색 활동이다.[44]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나 어떤 결정 없이 진행되는 순수한 대화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나딩스는 "대화는 전념이라는 기준 속에 함축되어 있다."[45]고 했다. 이렇게 전념의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는 타자에 대한 배려자로서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나딩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46] 도덕교육에서 대화를 통해 도덕적 삶을 느끼고 실존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도록 한다.[47]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 올바른 대화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도덕교육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실천이다. 나딩스는 "태도와 정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48]라고 했다. 부분적이지만 경험에 의해서 배려의 태도와 정신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배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경험은 배려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나딩스는 아이들이 배려하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배려에 참여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한 어려움과 만족감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일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49]

---

44) 넬 나딩스, 전게서(2002), p.55.
45) 상게서, p.56.
46) 넬 나딩스,『넬 나딩스의 교육철학』, 박찬영 역, (아카데미 프레스, 2010), p.298 참조.
47) 김수동,『배려의 교육』, (장서원, 2005), p.125 참조.
48) 넬 나딩스, 전게서(2002), p.5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의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딩스는 아이들이 배려에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 없이 행해지는 단편적인 배려를 원하지 않는다. 조건이나 상황들도 옳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반드시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배려의 실천은 학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50]

도덕교육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인정하고 격려해 주기(확증)이다. 나딩스는 이 개념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서 인정해 주고 격려해주는 행동"[51]으로 정의한 마틴 부버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했다. 우리가 학생들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는 때는 그 학생이 자신의 더 훌륭한 자아를 찾아서 발달시켰을 때이다.[52]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재능이나 능력, 관심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정과 격려를 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딩스는 "신뢰와 지속성은 확증을 위한 요건이다."[53]고 했다. 학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만남은 학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고, 그 지식은 교사가 학생에게 인정과 격려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딩스가 제안한 4가지 도덕교육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도덕교육의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교육을 제안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기본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교육적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교육적 방법을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이 완전한 해결책이라 생각지는 않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공감능력이 배려의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9) 넬 나딩스, 전게서(2010), p.299 참조.
50) 넬 나딩스, 전게서(2002), p.58 참조.
51) 넬 나딩스, 전게서(2010), p.299 .Martin Buber,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1965) 재인용.
52) 박병춘, 전게서(2002) p.154 참조.
53) 넬 나딩스, 전게서(2010), p.3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3장 배려윤리의 교육방법 연구

현대 한국 교육의 무한경쟁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한 관심 분야가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아이들은 서로를 배제시키는 일에 너무 쉽게 동의하고, 목표를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왕따, 학교폭력 등은 현대 한국교육의 당연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배려윤리를 제안하였다.

나딩스의 '배려'의 시작은 배려자가 피배려자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공감에서 구체적인 행동인 배려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누스바움의 '공감'과 그것을 기르기 위한 '문학적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 제1절 감정과 공감

### 1. 감정

우리가 배려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공감, 즉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인간은 세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나 행동, 얼굴에 감정이 드러난다. 우리는 불안, 공포, 기쁨, 슬픔, 희망, 감사, 동정심 등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흔히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사고나 추론에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지성은 함께 움직인다.[54] 누스바움도 감정은 가치가 포함된 인식이라고 한다.[55]

> 감정은 인간의 경험이다…… 인간의 감정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두려움이나 화,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54) 심성보, 『도덕 교육의 담론』, (학지사, 1999), p.175 참조.
55)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p.546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기능적 능력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56]

누스바움에 의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감정에 대한 관찰은 중요하다. 누스바움은 감정의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감정의 범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랜 서구의 전통-철학적 전통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 속에서도-에서 사람들이 흔히 감정 또는 열정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인간 경험은 많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져 왔다. 철학적 전통과 이와 연관된 대중적인 문학 사상에서 감정이라는 범주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감정으로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증오, 연민 또는 동정심, 시기, 질투, 희망, 죄책감, 감사, 수치심, 혐오, 사랑 등이 있다. 비서구 전통에서도 얼추 비슷한 방식으로 이러한 인간경험을 분류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 분야의 감정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비슷한 목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분류한 핵심은 이러한 경험이 범주를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육체적 욕구와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짜증이나 특정한 형태의 우울과 같이 대상이 없는 기분과도 구별된다. 표준적인 목록에 올라와 있는 감정은 서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그것이 담고 있는 구조면에서 욕구나 기분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정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특정한 사례의 분류는 논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감정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중심 항목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57]

누스바움에 의하면 인간경험을 통한 이러한 감정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어떤 공통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또한 감정은 육체적 욕구나 대상이 없는 기분과도 구별되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감정을 비합리적이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능력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대의견들이 있다.[58]

---

56) 김연미, “M. Nussbaum의 자연법사상: 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p.414.
57)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p.53.
58) 마사 누스바움, 『시적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박용준 역, (궁리출판사,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 감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인데,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행동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누스바움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감정의 역할을 논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배려윤리를 행하기 위해 감정이 단순히 불안정한 사유의 한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감정이 온전한 윤리적 시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남기를 원하다. 우리의 사고 속 합리성을 갖춘 감정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안정적인 공감과 배려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스바움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감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네 가지 견해로 정리하고 반박했다.

> 첫째, 감정은 이성적 추론과 전혀(혹은 그다지) 관련 없는 맹목적인 힘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세찬 돌풍이나 부풀어 오르는 바다 물살처럼 감정은 행위 주체를 마구 흔들어 불합리한 비사유(unthinking)의 기운으로 이끈다. 감정은 반성이나 판단을 그 안에 포함하지 않고, 이성의 판단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다……감정은 인간 삶을 결핍되고 불완전한 것으로, 또 문제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린다……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좋음에 관한 중요한 요소를 외부에 두기 때문에 행운의 돌풍과 함께 변할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세계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59]

이는 감정이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누스바움의 반론은 이러하다.

> 감정은 그 자체 내에 대상을 향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감정 안에서 대상은 의도적인 기술에 의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대상은 감정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지각되듯 감정 안에 각인된다. 나의 분노는 단순히 피가 들끓는 충동이 아니다. 이는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다. 내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 자체로 내 감정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다.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나의 좋음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고마움으로부터 분노를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반대되는 지각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된

---

pp.128~135 참조.

59) 상게서, pp.128~1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의미에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다. 사랑은 그 대상을 특별한 경이로움과 중요성이 부여된 것처럼 지각한다. 다시 말해, 대상을 지각하는 이러한 방식은 감정의 특성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다……감정은 최소한 그 어떤 것이든 부분적으로는 지각 방식을 의미한다. 감정은 또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믿음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60]

즉, 누스바움에 따르면 감정이 그 안에 대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감정에 관한 주요 요소가 외부에 있지 않고 대상에 대한 평가가 그 감정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감정은 비합리 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결핍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감정이다. 이것은 첫 번째 반대의견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합리적인 훌륭한 사람은 자기 충족적이어서 외부에 감정의 원인이 있을 수 없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외부대상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스토아 학파의 반박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깊은 필요를 느낀다는 믿음은 언제나 그릇된 것이다. 진정 유일하게 필요한 지혜는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그릇된 믿음들은 사회적으로 해가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며, 행동의 안정감을 앗아간다. 이러한 그릇된 믿음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61]

즉, 훌륭한 사람에게는 불안과 자신감 없음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박하여 누스바움은 동정심(연민)의 감정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 동정심은 불운의 많은 일반적인 형태-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전쟁의 고난, 정치적 권리의 박탈, 육체적 고통이나 결함,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상-가 사실상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동정심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감정을 인간 삶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스토아 학파는 바로 그 근

60) 상게서, pp.136~137.
61) 상게서, p.1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본적인 믿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사회정의와 선행의 이름으로 이에 관여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 자기 충족적인 덕의 개념에 근거한 철학적 입장들은 왜 선행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중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감정이 좋은 추론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은 세계를 온전하게 보기 위한 필수적인 방식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62]

누스바움은 스토아 학파가 말한 감정이 제거된 훌륭한 사람은 좋은 추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비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을 말했다.

셋째, 공적 숙고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감정은 개인의 실질적인 유대 관계나 애착에 주목한다. 특히 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향하기 마련이다. 감정은 사물을 많은 다양한 것 중 하나로서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여긴다. 이 특별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당사자의 삶에서 갖는 의미에 따른 것이다. 감정은 언제나 마음 가까이에 있으며, 말하자면 1인칭 시점을 내포한다. 그래서 사랑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의 강도는 대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결이나 소통이 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감정들은 자아 가까이에 놓인 개별적인 것들에 도덕적 상상력을 결부시킨다. 감정은 인간의 가치나 심지어 고통까지도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 동떨어진 삶, 보이지 않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나 칸트주의적 도덕 이론의 관점 어느 쪽에서 보든-설령 감정이 여전히 한 가정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감정들을 합리성이라는 공적 규범으로부터 배제하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63]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것이 개인적 영역 밖의 것에는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명정대하지 않아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감정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

62) 상게서, pp.145~149.
63) 상게서, pp.133~1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런 주장에 대해 누스바움은 디킨즈의 소설『어려운 시절』속에 등장하는 루이자와 씨씨의 비교를 통해 반박한다.[64] 루이자는 오직 계산만 하고 감정을 제거하려는 교육만 받은 아이이고, 씨씨는 감정이 충만한 교육을 받은 아이이다. 그런데 루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 10만 명의 선원이 장거리 항해를 떠났는데 그 중 500명이 익사했다는 사실을 듣고 낮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 목숨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 것이다. 씨씨는 죽은 이들의 친척들에게 낮은 수치가 그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낮은 수치에 근거한 안일함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말했다. 씨씨는 죽은 이들에게 인간성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년기의 감정에 대한 억압은 감정을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버린다.[65]

넷째, 감정이 큰 사회적 단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감정들이 개별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보다 큰 사회적 단위, 예를 들면 계급과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소설을 정치적 성찰에 있어 전적으로 부적합한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여타의 정치 사상가들에게서 나타난다. 몇몇 다른 견해에서 소설은 비판적인 정치적 고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에 봉사하는 도구로 간주된다.[66]

이 말은 감정이라는 것이 개별적이어서 사회적인 문제에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데, 이 말에 대해 누스바움은 이렇게 반론했다.

> 개별적 인간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인간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기능을 고취시키는 데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에는 매우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야기가 없는 계급운동 이야기는 늘 개별적 삶의 개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계급적 행동의 핵심과 의미를 보여주지 못한다……감정의 응답에 근거한 인간 이해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접근 방식이 옳은 방향을 잡는 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기반인 것이다.[67]

64) 상게서, pp.150~154 참조.
65) 상게서, pp.150~154 참조.
66) 상게서, p.134.
67) 상게서, pp.157~1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계급운동이 감정의 개별성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누구를 위한 사회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누스바움은 감정의 쓸모없음을 주장한 4가지 의견에 반박하며 감정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배려윤리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은 타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겪을 모든 상황과 감정에 대한 적극적 공감이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누스바움이 주장하듯 합리성을 띠어야 한다. 적절한 감정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적절한 행동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적절한 감정은 온전한 배려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 2. 공감

공감의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이다.[68]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애덤 스미스도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지켜보는 즐거움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과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이다……타인의 고뇌를 절실히 느낄 때, 타인의 고뇌를 받아들여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타인이 느끼는 것을 생각하고는 전율한다……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의 원천이라는 사실, 상상에 의해 고통 받는 자와 입장을 바꿔 봄으로써 고통 받는 자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연민과 동정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는 말이다. 아마도 본래 의미는 동일한 것이었겠지만, 이제 여기서 동감을 모든 열정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69]

애덤 스미스의 동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감과 그 내용이

68)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2010), p.16 참조.
69) 애덤스미스, 『도덕 감정론』, 박세일 역, (비봉출판사, 1996), p.27~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틴 호프만도 그의 저서 『공감과 도덕발달』에서 공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들, 즉 그의 사상, 감정, 지각, 의도 등에 대한 인지적인 자각이다. 공감은 다른 사라에 대한 대리적인 정의적 대응이다.”[70] 공감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학자들마다 그 견해차가 있는 이유는 공감의 구성요소들의 차이 때문임을 확인했다.[71] 즉, 공감의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첫째는 인지적 요소이다. 이것은 공감의 개념 안에 사고를 포함한 인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견적 기능을 강조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미드(G. H. Mead)는 공감적 과정을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지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견적 능력이 부각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해 보고 그 행위를 예측하거나 반응해 봄으로써 나타난다.[72] 즉,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공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삐아제(J. Piaget)는 아동의 인지능력의 발달처럼 공감능력도 계속된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했다. 피아제는 아동이 탈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한 일곱 살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73] 두 학자들의 인지적 공감을 종합해 보면 공감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언어나 행위들을 인식하고 예견하는 사고 작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서적 요소이다. 정서적 요소를 가진 공감은 타인과 감정을 나누어 가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감정이 아이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되어 비슷한 감정이 생기는 일종의 정서적 감염이 발생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즉,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고, 그 반응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74]

셋째는 의사소통적 요소이다. “공감하는 행위는 타자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된다.”[75] 이것은

70) 마틴 호프만, 『공감과 도덕발달』, 박재주 역, (철학과 현실사, 2011), p.48.
71)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6), p.69참조.
72) 상게서, pp.70~71 참조.
73) 상게서, p.73 참조.
74) 상게서, pp.75~78 참조.
75) 상게서, p.8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국 공감이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에 대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반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복합요소설이다. 공감은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의사소통적이라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할 수 없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공감능력은 인간의 발달과정 속에서 복합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76]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배려의 실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스바움은 공감(empathy)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77] 공적인 삶에서의 문학적 상상력을 중요시했던 누스바움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배려윤리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이 그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에 대한 문제는 배려윤리와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의 연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공감은 배려의 원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공감은 우리가 언제나 도움의 필요에 처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하는 태도이다. 정의가 분배의 원리에 기반한다면, 배려는 필요의 원리에 기반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야 한다는 배려의 원리는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원칙이다. 개인적 복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배려는 고통을 당하는 특정한 피해자들과 관련되고, 우선적으로 그 고통에 대한 자아의 확장을 통해 공감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정의적이다.[78]

공감은 우리의 삶에서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감은 감정공유가 없던 타자를 내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감정을 공유하게 하고, 타자의 삶에 관여하여 배려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

76) 상게서, pp.86~94 참조.
77) 마사 누스바움, “약자에 대한 배려능력으로서의 공감”, 오병선 역, (서강법학 제10권 제2호, 2008), p.210 참조.
78) 김연미, “공감의 법사상”,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8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2절 문학적 상상력

누스바움은 시민들이 가져야할 필수적인 능력은 감성과 공감인데 이러한 능력은 문학을 통해, 특히 소설이 권장하는 상상력을 통해 계발할 수 있다고 한다.[79]

> 서사 예술은-참여와 공감적 이해, 가시성을 거부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통해-우연한 여행자의 관심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 우리와 일반적인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삶이, 특정 상황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행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망과 욕망, 희망과 두려움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결정과 매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인종적 고정관념의 역사가 자긍심, 성취, 사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교육 관련 문제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80]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형성된 공감의 능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만들어 내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은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문학의 본질적 기능과 그것이 우리 삶, 특히 배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학, 그것도 소설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누스바움의 소설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 소설은 고유한 형태와 스타일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방식을 통해 삶의 규범적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을 띤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한 방식이 아닌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또한 독자들을 특정한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갖도록 이끈다.[81]

누스바움에 따르면 소설의 형태와 스타일, 소통방식을 통해 도덕적 규범을 우리 삶

79) 마사 누스바움, “민주시민과 서사적 상상력”, 황은덕 역, (오늘의 문예비평, 2010 겨울통권 79호), p.23 참조.
80) 상게서, p.30.
81) 마사 누스바움, 전게서(2013), p.2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소설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해주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소설에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학의 분야 중 왜 하필이면 소설이어야만 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소설은 살아있는 형태를 지니며, 사실상 여전히 그 중심은 도덕적으로 심오하면서, 우리 문화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허구 형식이다……구체적인 상황이 인간의 감정과 염원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매우 생산적이면서 우리의 숙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장르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82]

배려윤리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도덕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볼 때 경험되지 않은 타인의 구체적인 상황묘사는 남을 이해하는데, 그 감정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설의 구체성이 어떤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되며 감정의 공유가 되게 하는지에 대해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소설은 다른 서사 장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소설이 인간의 일반적인 염원과 그러한 염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사회적 삶의 특정한 형태들 사이의 상호연관을 -그 과정에서 이를 굳건하게 형성하면서- 그 주제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최소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사실주의 소설의 부류)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구현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의 끈질긴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아니 대부분, 독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잠재적인 독자들을 구성하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독자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과 희망이나 두려움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그러한 이유로 그들과 동일시하고 공감하면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는 그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를 습득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가상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갖는 고유한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사회와 환경의 변화무쌍한 특성이 어떻게 공유된 희망과 욕망의 실현에 관계를 맺는지를 -또한 그 구조 자체와도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83]

82) 상게서, p.3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설은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주인공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의 관심사를 독자가 공유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면서 특수한 삶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소설은 본 논문에서 중요시하는 타인과의 공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놀이는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서 장르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설은 상대주의적이지 않으면서, 맥락 의존적이고 윤리적인 추론의 한 양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진입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인간 번영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구체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다. 즉, 단일한 문화 내에서 혹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적 추론의 소중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독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했다. 물론 다른 독자들은 각자 다른 구체적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각각의 독자들은 한 소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각각 다른 것들을 응당 발견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소설 읽기로서의 공적 추론이라는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개진해 나가기를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즉 거기에 포함된 추론은 맥락 의존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의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충해주는 다른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화하면서 비교 가능한 것이 된다.[84]

소설은 둔감한 상상력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공감으로 이끄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려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의 능력이 소설을 읽으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은 배려윤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소설만 읽으면 다른 이들에 대한 공감이 생기고 배려윤리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누스바움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 많은 유명한 작품들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내포하기도 하는 환상을 유발하거나

83) 상게서, p.36.
84) 상게서, p.3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원초적인 정서들을 자극함으로써 독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므로 소설의 기여가 정치적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다른 독자와의 대화가 요구되며, 도덕 및 정치 이론의 여러 입장을 반영한 소통을 통해 소설 자체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대체로 우리는 스스로 숙고한 도덕적·정치적 견해와 독서를 통해 얻은 통찰 사이에서 최선의 조화를 찾고자 한다. 독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견해를 바꾸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견해들은 독서의 경험을 기이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85]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독자들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소설을 읽게 되었을 때, 공감의 정도도 다르고 이해의 차원도 달라서 서로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독자들 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품의 질이 현저히 낮았을 경우는 어떠할까? 우리가 문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좋은 문학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질 낮은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공감적 상상력은, 그것이 인간 존엄성의 평등성이라는 관념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변덕스럽고 불균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지리, 계급, 인종에서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세련된 공감능력을 보이는 반면, 멀리 있는 이들 또는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그 능력을 보이지 않기란 너무나도 쉽다. 더욱이 불균형적 공감능력을 강화시키는 예술 작품은 부지기수다. 인종차별적 시각을 지닌 문학작품이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읽으면서 상상력을 함양한 아이는 분명 민주 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함양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적 운동들이 특정 집단과 사람을 모욕하고 낙인찍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예술, 음악, 수사학을 이용하는 법에 능통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상상력과 관련된 민주교육은 조심스러운 선정 작업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러한 품질 미달의 '문학작품'이 기능하는 방식이란 낙인찍히는 입장을 상상하며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소수자 또는 여성을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경험도 해보지 못한 단순 사물로서 취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비록 다른 이들에 대한 건강한 도덕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내면적 삶을 탐색해 보는 상상 활동은 적어도 문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86]

---

85) 상게서, p.43.
86)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역, (궁리, 2010), pp.183-18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누스바움이 말하듯이 우리가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선정일 것이다. 타인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을 통한 공감의 형성이 건전한 배려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문학 작품은 우리를 타인의 삶에로 향하게 하고, 타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여 공감하게 하고, 결국 배려의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누스바움의 교육방법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 우리는 학생들의 '내면의 시선들'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을 성, 인종, 민족 이슈들과 만나게 하는, 그들을 비교문화적 경험과 이해에 노출시킬 심혈을 기울인 예술, 인문학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 교육은 세계 시민 교육에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 예술 작품은 흔히 다른 한 문화의 성취와 고통에 대한 앎을 시작해보게 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이다.[87]

누스바움에 따르면 타인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하고, 그 교육은 학생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어야할 시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받아야 할 시기가 있다.

> 시민적 상상을 위한 기반은 어린 시절에 마련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이야기, 동시, 노래 등에 관해 탐구할 때-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어른과 함께할 때-그들은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새로운 예민함으로 알아차리도록 인도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불평등한 행운과 더욱 분명하게 맞닥뜨리고, 이것이 절박함과 중요성을 확신하게 된다……좀 더 성장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문학 작품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고대 아테네 문화가 비극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던 대로 청소년을 위한 도덕교육과 연관성이 있다.[88]

문학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감은 물론 나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며, 심지어 내가 평생 가도록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필요도 없는 이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89] 이것이

87) 마사 누스바움, 전게서(2010), p.182.
88) 상게서, pp.37.
89) 상게서, pp.37-40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야 말로 배려윤리가 추구해야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소설의 능력은 문화적 계층적 고정관념을 거스르게 하고, 서로에 대한 개방성과 공감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서로에 대한 개방성과 공감은 정의 윤리가 그동안 타인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윤리들을 요구했을 때 배제되었던 수많은 타자들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 문학작품들로 인해 길러진 문학적 상상력은 서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통한 타자수용은 배려를 행할 수 있는 기본자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단순한 수용이나 같은 상황에 똑같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삶의 맥락 안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누스바움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한다.

> 그러나 문학적 해석이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모두 비슷하다는 단순화된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이라면 피상적인 것일 것이다. 경험과 문화는 '본질적인' 것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숙고하고 독서 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실제 삶이 충분히 개발할 수 없는 공감의 확장이며, 문학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절박하게 중요한 이유이다. 이것은 문학의 정치적 약속이다. 즉 문학은 우리가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타자와 나 사이의 삶과 사고의 유사성과 심오한 차이를 드러내고,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90]

나와는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상상해보고,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능력이 바로 소설의 힘이고, 우리가 소설을 통해 교육시켜야 할 문학적 상상력의 힘인 것이다.

누스바움은 타인에 대한 상상력의 교육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한다.

> 무엇보다 먼저 공공교육은 모든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디킨스의 그래드그라인드가 쓸모없는 '공상'과 '경탄'으로 폄하하는 능력은 지성을 이해타산적으로 사실을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것-그는 이쪽을 선호한다-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과 동맹해 우리 제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사실의 인간적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90) 상게서(2010), p.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것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점차 점점 더 많은 적절한 판단을 습득하고 점점 더 많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교육에서 인문학과 예술에 더 많은 자리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91]

그러나 이렇게 타인에 대한 상상력의 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누스바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이와 관련해 사소하거나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문학과 예술은 점점 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열외 취급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오직 시민 형성에만 기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은 시민 됨에 대한 핵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 없이는 둔감하고 감정이 죽은 시민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들은 타자의 이미지에 무감각한 내면세계를 너무나 자주 동반하는 공격적 바람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술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낳는 어떤 사안이 인간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당되는 다른 사람과 연관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진 시민을 낳는 처방일 뿐이다.[92]

타인에 대한 상상력의 결여는 감정이 죽은 사람을 낳게 되고,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고 누스바움은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상상력의 증가는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 누스바움은 이렇게 언급한다.

> 특수한 사회적 장애물을 넘어 공감을 촉진시키려면 그러한 장애물과 그것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예술작품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한 장르 중의 하나로 현실주의적인 사회 소설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독자를 자신이 처한 것과는 다른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독자를 그러한 상황에서 특권을 가진 집단뿐만 아니라 억압당하는 집단의 거주자로 만든다. 그런 식으로 상상력의 근력을 훈련 시켜 잠시 다른 사람의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외부자 시선으로 그러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93]

도덕적 선택을 고민하게 해주는 현실주의적인 소설이야말로 타인의 삶의 맥락

91)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새물결, 2015), p.767.
92) 상게서, p.767.
93) 상게서, p.77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잘 상상하게 해주고, 이러한 상상력의 근력훈련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본이 되게 해준다. 배려윤리의 기본이 되는 공감, 즉 타자의 수용성은 문학을 통해, 특히 소설이 권장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계발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 교육이 학생들의 삶의 자세를 모두 바꿀 수는 없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4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의윤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의 영역을 제안했던 길리건으로부터 나딩스에 이어지는 배려윤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려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적 모색으로서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을 살펴보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배려의 실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요즘 들어 학계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 공감, 관계, 유대, 협력, 공동체, 배려 등이다. 모두들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일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물질문명의 폐해 현상이 만연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소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직접 겪기도 하고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기존 정의윤리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대안으로의 도덕을 말하기 시작했고, 교육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배려윤리이다. 배려는 여성의 고유한 도덕적 성향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의 도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길리건과 나딩스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를 교육의 자리로 확대시킨 이가 나딩스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이다. 학생들과의 배려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에게 배려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법, 서로가 서로에게 전념한 상태로 대화를 하는 방법, 배려를 실천해 보는 방법이 있고,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는 방법들이 그것이다.

나딩스의 배려윤리는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공감의 능력이 갖춰진 이후에야 비로소 모델링, 대화, 실천, 확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필자는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에 주위를 기울였다. 누스바움은 우리가 소설을 읽음으로써 소설이 가지는 고유한 형태와 스타일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방식을 통해 삶의 규범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한 방식이 아닌 다른 특정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우리는 소설을 읽고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의 행동들에 대해 공감한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의 타인을 보더라도 소설 속 비슷한 상황의 인물들을 떠올리며 현실 속의 타인들을 공감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공감이 끝나면 우리는 그 타인에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배려윤리 교육의 방법으로서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자는 주장을 한다.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교육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공감은 배려를 실천 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첫 관문이기 때문에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려윤리를 실천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참고문헌

## 1.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김연미. “M. Nussbaum의 자연법사상: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_____. “공감의 법사상”.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4.

마사 누스바움. “약자에 대한 배려능력으로서의 공감”. 오병선 역. 서강법학 제10권 제2호. 2008.

_____.“민주시민과 서사적 상상력”. 황은덕 역. 오늘의 문예비평. 2010.

박병춘. “보살핌윤리(An ethic of care)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1999.

이동윤. “넬 나딩스의 배려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임정연. “나딩스의 배려교육론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 2. 1차 문헌(길리건, 나딩스, 누스바움의 저서)

넬 나딩스. 『배려교육론-인간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다른우리. 2002.

_____.『넬 나딩스의 교육철학』. 박찬영 역. 아카데미 프레스.

마사 누스바움. 『시적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박용준 역. 궁리출판사. 2013.

_____. 『감정의 격동』. 조형준 역. 새물결. 20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_.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_____.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역. 궁리. 2010.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1997.

## 3. 2차 문헌

김수동. 『배려의 교육』. 장서원. 2005.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인간사랑. 2004.

마틴 호프만. 『공감과 도덕발달』. 박재주 역. 철학과 현실사. 2011.

박병춘. 『배려 윤리와 도덕 교육』. 울력 2002.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6.

심성보. 『도덕 교육의 담론』. 학지사. 1999.

애덤스미스. 『도덕 감정론』. 박세일 역. 비봉출판사. 1996.

이나현. 『배려윤리의 내러티브 교육과정을 위한 탐색』. 한국학술정보(주). 2008.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2010.

카트, 나딩스, 스트라이크. 『정의와 배려』. 윤현진 외 역. 인간사랑. 2007.

콜버그, 레빈, 휴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문용린 역. 아카넷. 2000.



Collection @ chosun